

‘돈먹는 하마’ 전남도립대 ‘틀’ 다시짜야

자체 수입 30억... 전남도 내년 지원액 100억 넘어 반값 등록금 정책, 회관 신축, 인건비 급증 원인

전남도가 내년 도립대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학생회관 신축 등으로 인해 갈수록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 측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선 6기 전남도정의 대표적인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80억원을 지원했으며, 신축 학생회관 설계비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에, 학생회관 건축비 48억원이 추가되면 도립대에 쓰이는 예산만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 도 지원금은 58억원에 불과했으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데다 교직원 수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도립대의 1학기 등록금은 인문계가 86만원, 이공계가 96만원 정도 수준이며, 학생 수는 1735명이다. 이들이 내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자체 수입은 30억5000만

원으로, 올해 도립대 예산 111억7300만원의 27.3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전남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또 교수 50명과 직원 34명을 위한 인력 운영비가 69억1700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립대 관계자는 “도 파견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대학평가를 받기 위해 도서관, 실험실습비 등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어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8년 고졸자의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시점을 앞두고 질 높은 취업을 제고, 학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은 도립대 측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립대 학생 상당수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취약계층인데다 도립대에 ‘경쟁논리’만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옥문화산업, 호텔관광문화 등 전남도의 정책에 의해 학과가 설치되면서 현실성이 미흡해진 측면도 있다.

전남도는 도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립대가 개교 16년이 지난 만큼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 비전에 맞게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총장 선임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명벌 작동 잘되나 16일 여수 앞바다에서 완도-제주 간을 다니는 여객선 한일카훼리1호(6327)에서 구명뗏목(구명벌) 40개를 바다로 직접 투하해 작동 여부를 살펴보는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에코벨리, 신대단지 승인서 내용 허위 변경

감사원 적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알고도 은폐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난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위법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월 전남도가 승인한 신대배후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개발과 실시계획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순천시의 업무 소홀, ‘순천에코벨리(주)’의 위법사실 등이 일부 확인됐다.

실제로 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

(주) 측은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해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승인기관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직인을 날인,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12월 순천에코벨리가 임의로 변경승인서의 건축허용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추가하는 등의 허위내용을 써 넣어 결과적으로 공공청사용 용지를 일반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 연관 기관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순천에코벨리의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순천

에코벨리를 위해 업무처리를 해준 점이 적발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반업무시설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승인하고도, 사업자가 일반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책자에 허위로 집어넣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건축허용용도를 변경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시설 용지의 건축허용용도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삭제하는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임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변

경사항을 실시계획변경 승인서에 반영해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시는 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유보지에 대해 광양경제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았음에도 회신할 당시에 이를 빠뜨려 ‘협약내용 실시계획 변경 불철저’로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상 양도받아야 할 기존 유보지였던 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매각대금 84억5000여만원과 국내에 매각될 경우의 외국의료기관용지 매각대금 181억1000여만원(감정가액의 50%) 등이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해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도, 내달 초 AI 종식선언 가능할까

내일 도내 일제소독

전남도는 16일 “지난달 23일 AI 발병으로 육용오리 1만3000여마리를 살처분한 담양지역에서 3주간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방역 요령에는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또 해제 뒤 비감염 농가를 포함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징후가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종식을 선언하게 된다.

1주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이동제한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께, 종식선언은 다음달 초순이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국적인 종식선언은 최근 강원도 횡성 거위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다음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전남도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오는 18일 일제소독에 나서기로 했다.

일제 소독에는 도내 시군과 축산위생사업소, 농축협, 축산단체에서 보유한 방역방제기, 소독차량 등 모든 소독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된다.

닭·오리 농가는 물론 칠새 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AI 조기 종식을 위해 일제소독의 날, 가금류 이동 시 검사 강화, 종오리 농장과 발생농장 일제검사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해왔다.

전남지역에서는 AI로 7개 시군 86농가 닭과 오리 228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농가 보상과 방역비 등 모두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내현, 소방차 우선 통행 ‘모세의 기적’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6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하지 않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긴급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모세의 기적’이란 별칭으로 나온 이 법안은 진로 방해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수준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 자동차를 긴급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인차량 등이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긴급자동차에 잘 양보를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사적 이용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디 스피토모세이가, 여수에 1억달러 투자

연 6만t 고흡수성수지 생산

전남도는 16일 “스피토모세이가가 조만간 한국 내 투자를 위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총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고흡수성수지(삼품명 아쿠아킵) 제조시설을 여수산단 내 중흥지구에 건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장은 2016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스피토모세이가는 기능성화학품, 정밀화학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밀화학업체다.

전남도는 고흡수성수지 생산을 위해 해외 투자 후보지를 검토하던 스피토모세이가에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스피토모세이가 한국 법인이 생산할

고흡수성수지는 종이 기저귀 등의 흡수제로 사용되며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수출할 예정이다.

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료를 여수산단에서 조달해 관련 업체의 고용 창출과 수출량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찬균 전남도 기업유치과장은 “석유화학산업에 특화된 여수산단의 이점을 활용해 대규모 정밀화학 산업 유치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지난해 5억 달러 규모의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스피토모세이가를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고용 효과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정밀화학업체 유치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전문건설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지붕판금,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

효창건설(주) 대표이사 송재무
T (061)792-5577 H 010-3622-7755
위치: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a82 / PW : 1111
광양시 중마로 494-1 (마동정수장 앞)